지역사회 주민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향상을 위한 중재요인

조선진* · 임현우 · 채정미 · 지유나 · 방명희 · 오화영
조현주 · 서호준 · 이원철 · 전태연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 영등포구정신보건센터
중앙대학교의료원 신경정신과 ·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정신과

목적 : 우울증은 WHO(2001)에서 제시한 질병의 부담에 있어 4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살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우울증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적 도움을 받고자 하는 태도에는 제한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요인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보건교육시 접근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방법 : 서울시 Y구의 행정동 가운데 층화집락표본추출법을 통해 추출된 6개 동을 추출하였고, 선정된 각 동을 대상으로 통반명부를 표본틀로 한 계통추출법을 통해 1,005개의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하였다. 각 가구에서는 생년월일의 일자가 가장 빠른 가구원 1인이 조사대상자가 되었다. 2006년 10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훈련받은 조사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에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CAMI),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가족내 정신질환경험자 유무 등이 포함되었다.

결과 :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연령, 교육수준, 가구월소득, 결혼상태,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의 하위차원중 권위주의, 사회생활제한, 지역사회정신보건개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연령이 60세 미만일수록(p=.001),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중 권위주의가 강할수록(p=.047)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권위주의는 고연령(60세이상), 낮은 교육수준(고졸이하), 낮은 가구총수입(100만원미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지역주민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중 권위주의를 낮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연령이 높은 지역주민, 교육수준이 낮은 지역주민,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의식개선 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정신과적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 향상을 통해 정신과적 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기회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